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미란



얼마 전, 거의 이십오 년 만에 브레히트의 단편소설 '이단자의 외부'를 다시 읽었다. 이 소설은 지동설을 주장했으나, 종교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며 빠져 나온 갈릴레이와는 달리, 끝까지 지동설의 신념을 굽히지 않다가 사형을 당한 브루너에 관한 일화이다.

80년대 초반에 이 작품을 읽었을 때, 나는 심정적으로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종교재판을 받고 죽음을 선택하는 와중에서도 외상받이 남아 있는 외투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브루너의 성실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재봉사의 아내와 같은 무지한 민중들이 그들의 위대한 인물을 몰라보고 한겨울에 그의 외투를 벗겨내는 처사에 울분을 느꼈었다.

이십오 년 동안, 나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자신을 지식인의 테두리 안에 두며 살고 있었는데, 이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현재 교수

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양태가 소설 속의 재봉사의 아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지금 나의 주변 관심사는 논문 쓰기이며 내에 대한 실적 평가이다.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나 등재 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는 논문을 투고하지 않

대안적 지식인

며, 가능한 한 인센티브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강의한다. 능력이 있었다면, 영어 강의로 하고, 전공과 관련된지나 관련될 듯한 프로젝트를 따와서 대학원 제자들에게 연구비도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논문을 써내느라 더욱 바빴을 것이다.

나의 실적은 성과급에 반영되고, 학과 평가에 영향을 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평가에 반영이 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대학의 순위와 정부로부터 받는 대학의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내가 교수 생활의 대부분은 자본의 영향

력 안에 지배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 이상을 위해 헌신을 하든 투쟁을 하든 자신의 외상받이 문제였던 재봉사의 아내와 무엇이 다른가?

민주화 2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치적인 억압과 굴종을 강요받는 체제에서는 벗어났다. 이제는 지식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아니니, 시대적 사명이나 도덕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지식인들은 출가분해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기능적 지식인의 역할을

기 고

하고 있었을 것이다. 독재 정치에 대한 비판이 비판인 것처럼 생각해 왔던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토대가 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적 업적에 몰두하는 것이 자본이나 국가에 종속되는 과정이었음을 미처 인식할 사이도 없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기능적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지위와 부를 부여하고 있는 그 지식이 자신이 기반한 사회로부터 지출된 것임에 대한 책임 정도는 지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

식인이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지식과 윤리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자기 인식도 없었으니까, 서울대학교의 총장까지 했던 이가 기계이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바꾸며, 환경부의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공들여 온 팔당댐 부근의 유기농 농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지식이 단지 경제에 복무하기를 바라는 신자유적 사고의 거센 흐름과 체제 안에서 한 개인이 이를 거스르기는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근래에 국가의 지식 체제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대중과 소통하며 지식을 생산하는 '대중지식' 혹은 '다중지성'의 그룹들은 우리 시대의 지식 혹은 지식인의 대안처럼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로 대중이 지식의 소비자 이면서 창조자가 된 시대에 지식인은 더 이상 대중과 유리될 필요가 없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중지성의 일원으로서 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주 사회를 향한 정신적, 물질 토대를 대중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시민 사회에 어떤 지식이 자리잡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는가.

<전남대 교수·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획일적 교원배정 '전남 교사 대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 방침에 따라 전남도내 초·중·고 교사의 대규모 감축이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수를 반영해왔던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학생 수만으로 교원을 배정할 경우 도서벽지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남지역에서만 700명 이상의 교사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강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나 타당 행정의 전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도 도서지역은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판국에 적은 보수를 받고 도서벽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양질의 대체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가뜰이나 도서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이 이제는

스승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도시와 농촌 간 학력격차는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력격차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진출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 오면서 농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나중에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농어촌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더라도 교육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로의 집중은 피할 수 없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도시 학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별로 농어촌 학교가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여건 개선 없이는 농어촌을 살릴 수 없다.

사법부조차 특정계층이 독점하나

최근 10년간 판사로 임명된 신임 판사 10명 중 4명이 특목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 출신이라고 한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특목고와 강남 고교 출신이 사법부의 새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9년~2009년 사이에 임용된 판사의 인적구성을 보면 특목고와 강남 고교 출신의 비중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9.6%이던 특목고와 강남 3구 고교 출신 신규 판사의 비율이 2009년에는 37.0%에 달했다. 10년 새에 약 4배나 수직 상승한 셈이다.

반면 광주 등 6대 광역시와 시·군 등 '지방 출신' 비율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1999~2002년까지 전체 신규 판사의 40%가량을 차지했던 광역시 출신은 올해는 26.1%로 떨어져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시군 학교 출신 비율 역시 2001년 34.8%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8%로 내려앉았다. 결국 특목고와 강남 고교 출신이 사법부의 '주류세

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판사의 특정계층 출신현상은 사법부의 인적구성이 기형적으로 바뀌면서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체로 비슷한 지역적·계층적 배경에서 성장한 판사들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특정한 가치관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특정계층이 사법부의 절대 다수 집단으로 성장하면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나 법조비리의 새로운 토양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목고와 강남 고교 출신의 약진은 부모 세대의 경제적 능력이 학력과 사회적 지위까지 대물림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판사의 특정계층 독점현상은 사법부는 물론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다양한 계층을 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박현규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찾아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날 두느냐, 거짓말에 대해 엄히 처벌해달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필자가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피해자는 "그럼 저도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

함의 간부로서 회사로부터 현금이나 선물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연방 조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고, A는 허위진술죄와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 같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죄를 시인하던가, 침묵을 지키든가, 범행을 거짓으로 부인하든가 하는 '간이한 3자 택일'의 궁지에 빠지게 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

거짓말할 권리(?)

가 없나요"라고 되묻곤 합니다. 이에 필자가 "법정에서 거짓말할 경우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피해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근거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으로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사법제도를 가진 나라'라며 배심제관 등 근래 그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참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 자발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허위진술죄로 처벌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소극적 범행부인, 즉 수사관의 범행추궁에 대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이 허위진술죄에 해당하느냐가 논란이 되어 연방대법원에까지 그 사건이 올라 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A라는 사람이 노동조

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연방대법원 측에 하였습니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되는지"라는 우문(愚問)에 대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98년 헌답(賢答)을 내놓았습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침묵할 권리를 준 것이지, 거짓말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A가 주장하는 "3자 택일"의 궁지 중 뻔뻔한 거짓말을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여 죄없는 사람을 두고 하거나 죄지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돕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자는 '거짓말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참고인은 물론, 죄인에게도 통용되는 제도가 도입돼 거짓말할 권리(?)를 남용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지검 검사)

기 고

유광중



얼마 전 TV에서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를 봤다. 영화 중에 '크리스카드나'가 참담한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 갔을 때 교회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내 앞에 산이 나타나면, 그 산을 옮기지 마시고 산을 넘을 힘을 주소서"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산을 옮기지 말고 산을 넘을 힘을 주라는 것은 역경을 피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활을 돕고 있지만 여기에 자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즉 아무리 좋은 제도로 자립기회를 부여한다 한들 당사자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권 밖의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떤 좋은 제도도 소용없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 시 탈수급률(국민기초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

산울 넘을 "힘과 의지"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자활사업'이다.

'자활사업'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사회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각자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모든 사회복지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목표사업이다. 우리시는 24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 각각의 적성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자활에 참여한 자는 자활급여 및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며, 공동체 참여시에는 창업자금도 지원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자활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자활사업 외에도 생계, 주거, 교육, 보육, 의료급여 등을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한 시생계,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로 갑작

생활수급자의 자활비율)은 5.6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수급자의 '자활의지부족'이라 생각한다.

큰 나무 밑의 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다고 한다. 큰 나무가 처음에는 당장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겠지만 결국 그 나무의 그늘은 작은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는 큰 나무와 같다. 다시 말해 각종 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이 자활함에 있어 발판,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계속적인 보호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삶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러 제도가 발판이 될지 장애물이 될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각자의 의지 여부에 달려 있다. 여기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크리스카드나'와 같은 그런 의지로 자활제도를 발판삼아 도전한다면, 반드시 큰 나무의 그늘을 넘고 앞에 놓인 산을 넘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

(광주시 사회복지과장)

'홍삼' 약효 버금가는 '백삼' 홀대 아쉬워

인삼이나 백삼 혹은 홍삼 모두 뛰어난 고급 약재이다. 백삼의 경우 옛날에는 고려인삼 대부분이 백삼이었는데 지금은 홍삼이 대세인 듯 하다. 홍삼을 많이 먹고 그 원재료인 인삼이 많이 팔리지만 한다면야 걱정이 없겠지만 홍삼만 중요시되다 보니 백삼이 홀대받고 있다. 그래서 백삼은 수출도 잘 안 되고 인지도 낮아지는 추세다. 심지어 백삼은 인삼 중에 약효가 부족하고, 경작하는 방법이나 약재로 쓰일 때 조제방법과 성분이나 효능마저 다르다고 믿는 소비자들마저 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6년근 홍삼도 몸에 이롭고 백삼도 약효가 뛰어나다. 그런데 지금처럼 백삼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자꾸만 기피하면 앞으로 홍삼이 팔리기만 할지라도 생산 농가에서 백삼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6년근 홍삼뿐 아니라 백삼의 중요성과 효능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해서 인삼 농가들의 수익도 높여주고, 수출시장에서도 우리 백삼이 더 많이 팔리도록 홍보해 줄 길 바란다. ▲이종연·곡성군 석곡면

無 等 鼓

충장로는 70~80년대 청년기를 광주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추억의 명소다. 금남로가 행정·금융의 허브이자 '혁명의 거리'였다면, 상업과 패션의 중심지인 충장로는 젊음의 열기가 넘치는 '남만의 용광로'였다. 알 수 없는 몸부림으로 밤을 새웠던 고고장과 디스코텍, 단골약속 장소였던 뽕집이나 음악다방, 교복 차림으로 몰려 들어갔다가 끝내 들기코야 말았던 영화관, 통기타 반주에 아침이슬을 따라 부르며 새벽을 맞았던 선술집... 일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아련한 추억이 살아숨쉬는 '또래 문화'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등 대형 행정기관이 잇따라 이전하고 도시 외연이 확장되면서 충장로는 활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도심 공동화와 함께 침체 일로를 걸던 삼권월성화를 위해 기획된 길거리 문화축제가 '충장축제'였다. 중심 테마는 '추억'이었다. 2004년부터 1~2회 행사는 '추억의 7080', 3회는 '충장로 추억&만남', 4~

5회는 '추억&2030', 6회째인 올해는 '추억의 열정'을 주제로 삼았다.

충장축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늘었다. 지난 옛 새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는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소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중·장년층은 물론 놀이문화에 목이 말랐던 젊은이들까지 대거 가세했다. '청춘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연과 전시라, 추억의 동창회 등은 반복된 일상과 어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중·장년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흥행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축제의 앞날을 더욱 밝게 한다. 상가를 찾은 인파와 매출이 지난해보다 30~40% 늘었다는 게 동구청의 분석이다. '추억의 힘'이 비어가던 도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벌써 내년이 기다려진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추억의 힘



'과자' 자주 먹으면 성인병 유발 위험 높아

언제나 인기 만점인 간식거리 과자가 입은 즐겁게 하지만 각종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TV에 보도되는 것을 그대로 밝히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표적 과자류 30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과자들이 업체가 표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었고 2배 이상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배 1회 제공량에 포화지방이 하루 허용치의 절반 가량이 들어 있는 제품이 많았다.

이런 과자 두 봉지만 먹으면 하루에 허용되는 포화지방 허용치를 두 배 이상 훌쩍 넘기게 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과자류 습관이 틀어 먹은 경우 성인이 돼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과자류를 좋아하는 어른과 어린이 할 것 없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할 듯하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경 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